

QR코드를 찍으면
인터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국산화 성공 부유식 해상 운송선박용 분리기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대한민국 조선업계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한때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으로 성장을 거듭하던 조선업계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저유가 기조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독자적 기술 개발로 국산화에 힘을 보태고 있는 전진엔텍이다. 어려움을 도전으로 극복하고 있는 전진엔텍과 생기원 에너지플랜트그룹의 협력과 노력이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기술지원기업 (주)전진엔텍

연구책임자 동남지역본부 에너지플랜트그룹 임동하 수석연구원

기술이 곧 경쟁력

조선업계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을 포함한 관련 기업들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실적 부진과 구조조정 등으로 한층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상황. 게다가 저유가가 이어지면서 해양플랜트 사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해양플랜트란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가스 등 해양 자원을 발굴, 시추, 생산해내는 활동을 위한 장비와 설비를 포함한 제반 사업을 의미한다. 많이 알려져 있듯 우리나라는 해양플랜트 및 석유화학 플랜트 시공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실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안에 들어가는 내장부품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전진엔텍은 석유화학 플랜트 내에 들어가는 내장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쉽게 말해 화학공장이나 발전소 등에 높게 세워진 정유탑 안에 들어가는 내장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정유탑은 화학반응에 의해 원유의 정제나 특정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핵심시설로 화학반응을 돕는 다양한 내장품이 들어가는데, 특히 이 내장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기술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전진엔텍은 기술이 곧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2008년 자체 연구소를 설립하고 기술 개발에 돌입, 내장품 국산화에 성공한 바 있다.

자체 연구소 설립 후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전진엔텍은 생기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기본적인 기술력은 갖고 있었지만,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선 생기원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김병국 대표.

“우리 회사만의 독자적인 기술이 있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기본적인 기술력은 있었지만, 이를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었죠. 내장품 국산화 역시 생기원의 도움으로 함께 이뤄낸 큰 성과입니다.”

세퍼레이터, 국산화 성공

전진엔텍이 내장품 개발에서 나아가 해양플랜트 분야로 시야를 넓히게 된 건 지난 2012년 미국에서 개최된

▼ (왼쪽부터) 정해영 연구원, 심준섭 팀장, 임동하 수석연구원, 전진엔텍 이병돈 이사, 김병국 대표

